

사순절 묵상집

“저희가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라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순절 묵상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순절

이 영길 담임목사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 17)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어느 선생님께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가난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해서 굶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부잣집 문 앞에 다음과 같은 광고문이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화가 구함’

그림을 전혀 그릴줄 모르면서도 무조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양반이 나오길래 자신이 화가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인 양반은 공손히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풍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재는 화가의 재량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나그네 화가는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도 흔쾌히 허락하고 한 달동안 숙식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앞으로 한 달간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릴줄 모르는 나그네는 하루 하루 먹고 늙니다. 주인은 화가가 구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가 시간을 묶어 둘 수 있습니까? 일 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삼 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30일이 지났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삼십일 간 잘 먹고 놀았는데 병풍은 하얀 백지 그대로입니다. 그 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인 양반이 들어 올텐데 아직도... 끝내 나그네는 큰 붓을 들어 먹물을 잔뜩 묻힌 후 병풍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쪽 낙서하듯 줄을 긋습니다.

잠시 후 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며 그림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하얀 병풍에 검정줄이 간 병풍을 보여 줍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당장에 나그네를 쫓아냅니다.

그 날 밤입니다. 주인이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나가 아무리 찾아 보아도 주변에 샘물이 새로이 터진데가 없습니다. 다시금 잠을 청합니다. 또 다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바로 병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그네가 혼신을 다하여 병풍에 그린 검정색 선에서부터 나그네의 혼이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번 우리 교회에서 첫번째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사순절 묵상집은 많지만 한글로 된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을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교우님들의 혼이 담긴 글이 더욱 소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교우님들의 글로 편집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교우님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샘물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거룩함 앞에 흩어진 옷깃을 단정히 다시 여미는...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49)

몇 년전 우리 부부는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재의 수요일 예배를 가까운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후 목사님께서 지난해 종려주일에 주님을 환영하며 흔들었던 종려 가지를 말려서 태운 까만 재를 들고 나와 앞으로 나온 교인 한분 한분의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흠에서 왔으므로 흠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이마에 까만 재로 십자가 성호가 그려질 때 저는 마치 야구 방망이로 한 대 맞는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다음날부터 40일 간의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뢰는 간절한 소원과 서로 어우러져 넘치는 환희로- 기도 응답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거룩함 앞에 흩어진 옷깃을 단정히 다시
여미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어두운 새벽에 나의 어두움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 놓고
뛰는 가슴으로
새벽 햇살을 맞이하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묵은 때를 말끔히 씻기운 어린 아이 마냥
묵은 죄를 말끔히 씻김 받는
주님 품 안의
내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은
저에게 영적인 목욕 재계의 계절입니다.

(김 문소 장로)

매일 밤 내영혼을 맡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셨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나같이 엉망진창인 사람도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병사를 내리치는 것을
슬퍼하시며 고쳐주시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모양도 가지가지, 색깔도 가지가지인 나무를 빗으시고는
마냥 좋아하셨을 태초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나에 대한 희망을 한번도 놓으신 적 없는
끈질긴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승연 집사)

사람에게 버림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을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매일 배우길 소망합니다.
아멘.





금요일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얹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요한복음 19:1-2)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으나 실상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알지 못했으며 외로움과 수치가 어떤 감정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위할 줄 아는 이기적인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에게 커다란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그 소녀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게다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속에서 그 소녀는 울부짖고 원망하였습니다. 서서히 친구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이 되어 길을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혀를 꼴꼴 찡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는 어떤 분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녀가 당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체휼하신다고 했습니다. 소녀가 눈을 들어 그 분을 보았을 때, 그러나 그 분은 온몸이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되어있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겨운 한발 한발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당한 고난과 비교도 안 될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그 분이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느낀 수치감보다 훨씬 더 커다란 수치를,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을 그 분은 겪고 계셨습니다.

주님, 저의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커다란 고난 가운데서도 원수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겸손함을 이 시간 저에게도 채워주소서. 아멘.



그녀가 그 고통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 분은 그녀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위해 그런 고난을 겪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이 당한 모든 고통으로 우리의 아픔을 낮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와 교만함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진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여 30살이 넘은 그녀는 다시 그 분의 고난을 목상합니다.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숭고한 사랑을 목상합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던 그 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김 기현 교우)

존경하는 믿음의 선생님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34)

계획한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가다가 한 고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리 어려울까 고민하며 그 어려운 고비를 맞이한 내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어려움이 제가 바란 것이 아니고 보면 더 크신 분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믿음이 깊은 주위 사람들과 지혜롭고 신념에 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을 풀어감에 고비까지 함께 주신 하나님, 그 고비를 주실 때 뜻도 함께 주셨을텐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그것은 참으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아마도 꼭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으리라,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음조차 없던 때에 내 생명(生命)을 주시면서 나한테 사명(使命)도 함께 주신 분도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리라, 그 분이 마음먹은 명을 나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 끝나지 않았을텐데, 이 고비로 나를 앗아 가시려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차차 믿음으로 싹터 간 그 생각들이 점점 더 강해져서 확신이 되고 나니, 그 고난을 통해 준비하시는 다음 단계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고난 받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이 고난 속에서도 조용히 주어진 길을 가고 가고 또 가자. 이것이 내가 지금 완수해야 할 소명이구나' 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달갑게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 마음이 흐뭇해지기까지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다음 발을 내디딜 곳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딛

하나님, 고난 길도 기쁘게 갈 마음으로 괴나리 봇짐을 싣니다. 먼 길 떠나는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저를 태워 돌레를 밝히는 빛과 저를 녹여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는 길이 자갈길이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끝이 있고, 새로 난 길을 갈 때는 자갈길 가는 동안 익힌 요령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주어진 고난의 길을 철저한 고난으로 완수해 주셨고, 저들의 죽임을 죽음으로 옹호하셨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밤바람 찬 보스톤의 겨울밤에 선현들이 가셨던 고난의 가시밭길에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오니,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두 손을 붙들어 주소서.

(박 종배 집사)

깊어가는 골고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3)

이사야의 고난받는 주님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 깊어갑니다. 이사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게 느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체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한번 체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해마다 우리 몸 안에서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작년 사순절 때 느꼈던 고난보다 올해에 더 깊은 고난을 느껴야 합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더 깊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체험해갈 때 도리어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 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을 밝히 보여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온 인류에게 보여줌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참 해방을 선포하고 밝은 비전을 갖고 앞으로 올 아름다운 나라를 대망하며 설계해 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토록 온 인류에게 위대한 희망을 선포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의 모습을 체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게 주님의 골고다를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의 모습은 그에게 더 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는 깊어가는 골고다의 고난을 체험하면서 더 아름다운 소망의 나라를 온 인류에게 선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사야처럼 고난의 주님을 깊게 체험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영길 담임목사의 [깊어가는 골고다] 중에서...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7: 10)

순교자들의 처절한 피와 땀으로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보잘것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듯이 참회의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은 고통이며 내어줄을 동반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이 저희들의 멈출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채 자신의 구원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도 저희들의 죄를 감싸줌같이 나약하고 비굴한 저희들, 일으켜 세우셔서 고난 주간을 철저한 자기 성찰과 죄의 고백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며, 이 땅 위에 혼란을 거두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 딸로서의 소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산다면, 복된 동포의 굶주림의 고통, 아프리카의 배고픔, 죽이고 살리는 싸움이 어떻게 지금의 일들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행동이 없는 연약한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도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꽃은 떨어지는 향기가 아름답다 했습니다. 해는 지는 노을이 곱다고 합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눈을 감고 바라보며, 기도 드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순절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부활로 향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이 고난 속에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이 물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 영경 장로)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죄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받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고난 뒤 새로운 평안을 사랑하신 주님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27)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유함보다 가난한 자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으므로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편안함보다는 고난과 역경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서 면류관을 택하신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 뒤 찾아오는 평안을 더 사랑하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 하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중 한사람인 도마, 그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도마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나를 만져보라” 시며 믿게 하시고 도마로부터 “오 나의 주여” 를 터져나오게 하셨으며, 그를 믿음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도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많은 일상의 기적이 우리의 주변에서 날마다 펼쳐지건만 우리의 닫혀진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워진 눈으로 인해, 우리의 무더진 감각으로 인해,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덜 익은 자존심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론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그땐 기꺼이 다가와 주셔서 달래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들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천국 면류관을 마다하고 가서 면류관을 택하신 주님의 그 결단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선택이었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김 동숙 집사)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오직 헌신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아멘.



인생 마라톤의 승리자가 되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한복음 17:1-2)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해마다 4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큰 Sports Event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승부는 100 미터 달리기와는 달리 10초 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 시간은 걸려야 누가 1등 인지를 알게 됩니다. 42 킬로 미터가 넘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선수들은 때로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달리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험겁고 숨이 가쁜 오르막 길을 진땀을 흘리며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려나가는 순경의 순간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냥 주저 앉고 싶을 역경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마라톤을 후회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한 점의 후회없이 완주를 한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 분은 아마도 우리 주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 그 분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생애 사역의 오르막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복음 17장 1-5절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실려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완주하실 수 있도록 이끄신 그분의 삶의 중요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때' (the time)에 철저한 인식을 가지시고 그 '때'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사명은 죄인이며 아무런 자력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며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마라톤을 아름답게 완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홍 동욱 집사)

주님, 하나님은 일등을 하는 사람보다는 완주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는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찌어다"
(디모데전서 6: 21)

나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내게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것들을 놓치기 싫어
때론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화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던……

한번 더 뒤돌아보아 내 모습을 회개하지 못했던

그렇게 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저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해주심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지금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젠 나의 전부가 되어 버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유미 교수)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고 사랑할수 있게 항상 주님의 날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항상 주님옆에 깨어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일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베스트의 삶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3)

저는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할아버지는 유교를 신봉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햇빛이 비치게 되었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큰 삼촌은 감리교의 목사님이 되셨고, 두 삼촌은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또 저의 5형제는 위로 두 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아래로 셋은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인생이 무엇인가하고 고민도 많이 해 보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뜻있고 보람된 생활일까하고 사색하고 연구하다가 BEST란 단어 네 자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보았습니다.

B자는 Blessing others-즉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축복 받는 기회가 된다고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먼저 도착하거든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라 만약 평안이 그 집에 닿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네게 다가올 것이라” 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E자는 Endurance-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니까 사랑의 특성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참지 못해서 비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S 자는 Sharing-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나누고 유무상통한다면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 아닐까요?

T 자는 Touch- 즉 keep in touch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keep in touch하는 것은 분명히 훈훈한 사회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BEST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 재걸 집사)

주님,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이 모두 BEST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code가 맞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6-8)

“사순절 기간중 우리도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을까?”

지난 해 사순절 직전,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몸소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고자 하여 자신의 좋아하는 것 하나씩을 포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딸은 한창 좋아했던 Polly 인형 웹사이트(website)에 안가겠다고 했고, 아들은 게임을 안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와인을 비롯한 술을 안마시고, 나는 카페인을 끊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니 이것도 뜻있는 일에 들어 가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을만한 결정이었지만, 난생 처음 사순절 기간에 뭔가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정할 때는 쉬워보였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보니 사순절 기간이 꽤나 길게 느껴짐과 동시에 약간의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딸은 종교를 바꾸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하며, 친한 친구가 유태인인데 자기도 종교를 잠시만 바꿨다가 5월에 다시 돌아와도 되겠느냐는 아이의 꾀에 우리 부부는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구역예배 때에 친구의 게임기를 신나게 갖고 놀고,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아마도 자기를 이해해 주실거라고 변명하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참으로 오랫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아멘.



비가 오거나, 맛나는 반찬이 있거나, 기분이 좋으면 많은 핑계로 술 생각을 간절히 하는 남편의 모습이나, 매일 아침에 마시던 그 차 한잔이 나에게서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coffee를 안마신다고 했으면 tea라도 마실 수 있으련만 하는 후회도 컸습니다. 그 맛나는 커피를 마실 기회는 왜 이리도 많은지...

이 간단해 보이는 것들도 포기하기 쉽지않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의 귀하신 생명을 포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과 감사를 무한히 느끼게 하는 의미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사순절 기간이 끝날 때쯤엔, 두 아이는 자기들이 그리도 좋아했던 것들을 다 잊은 듯 했습니다. 드디어 부활 아침, 나는 교회에서 녹차를 마시면서 너무도 행복해 하는 제 자신을 발견 했고, 남편은 월요일 저녁에 와인을 박스로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사순절 기간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 정원 집사)



어깨의 낡은 붓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긴 악몽으로 하얗게 긴 밤을 훌훌 벗어 버리고
억새풀 잎새 사이로 또 하나의 일출을 맞이합니다.
긴 산고 끝에 내린 이슬을 삼키며
용트립하는 고목나무 아래에서
이제 한숨을 돌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살아온 고목의 노래를 벗삼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잎새마다 빼곡히 써온
주옥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축쳐진 어깨의 낡은 붓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암흑 속을 헤매이다 힘겹게 파닥이며
품 속을 파고드는 철새의 둥지가 되어주는
고목나무의 한없는 자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만물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칠혹같은 어둠속에 햇불이 되기까지
고목나무가 걸어온 저 *비아 돌로로사의
거친 고난의 세월을 영원히 기억하렵니다.

(심 윤보 집사)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슬픔의 길. 빌라도 법정에서 끌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십자가 수난의 길.)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둘이 아닌, 우리를 위해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의 모습이길 간구하나이다.
아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20-21)

하나님!

수없이 많은 날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기도하던
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속에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한듯이
주님 앞에 나가던 제 모습이 몹시도 어리석게 보이네요.

이제는 조건없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조건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 승현 집사)

주님, 오늘 하루도 사랑의 말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결단으로 시작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 17)

지나간 과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란 표정도 없는 커다란 바위처럼 요지부동입니다.
후회도, 원한도, 복수도...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어 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할 걸 그랬어”란 후회는 과거를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함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밑으로 끌어내려 바닥까지 내려 놓고 영혼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원한을 품은 장본인임을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늦게서야... 용서했다고 했는데 꼬리를 물고 계속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처음이 됩니다. 용서란 정말 힘듭니다. 용서란 결코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용서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주위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돌아보면 내가 변화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 신앙’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함을 낳게 합니다.
수치스럽고, 비극적, 흉칙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을 구속할 의향이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 구속되었습니다.

(이 정규 집사)

주님! 삶이란 언제나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주님의 고통만이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사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태복음 6:14-15)

아이를 위해 축복의 찬양을 불러줍니다.

“ ..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 ”

결혼 전에도 자주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울컥 목이 메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 대상이 내 아이라 생각해서인지 더 가슴을 파고 듭니다. 아이의 엄마가 되고나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악과 타협하며 사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귀한 아들을 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좋은지 누가 묻는다면 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창조해서도 아니고, 인간을 만들고 사랑해주셔서도 아닙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주셨기 때문도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신 ‘용서의 하나님’ 이시기에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슴에 예수님을 못박고 십자가 밑에서 울려다보던 정말 미운 우리를, 그 죄도 묻지 않고 용서해주신 댓가없는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용서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포용하려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뻗속 깊이 아파하셨을 주님을 기억하며 내 이웃에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 희현 집사)

주님!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 4)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언젠간 성숙한 어른으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거쳐 자신만의 신앙을 가진 한 크리스찬으로 자랄 날을 생각 해 봅니다.

아직은 까마득히 먼 일 같지만, 언젠가 올 그 날을 위해 나나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된 길을 가고 있는지 가끔은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없으면 어쩌나, 바른 본보기가 못 되면 어쩌나, 내 나쁜 점을 닮으면 어쩌나 하는 이런 저런 걱정이 들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갖 고통을 겪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작게는 우리 아이들 보기에 모범적인 아버지 어머니 상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손길이 내 아이들도 주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른 희생을 생각해보고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해 봅니다.

(김 성현 집사)

주님,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키울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저희 자식들을 맡길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언젠간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자랄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예수를 끌고 끌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삼 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마가복음 15:22-25)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 하면서 못살게 굴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을 때도 아픈 것을 꼭~ 참았어요. 소리로 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저 같으면 손에 가시가 들어가도 아파서 징~징 우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밋게 하면 저는 기분이 나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용서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사람도 용서했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였으면 소리 지르면서 울었을 것이예요.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enemy에게도 잘 하셨어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말도 예쁘고 공손하게 하시고 나쁜 행동을 enemy에게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조그만 일에도 화내지 않고 잘 참고 예수님처럼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닮아 가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오빠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뽀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서 윤진-유년,초등주일학교)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잘 참고 공손하고 착한 어린이로 크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죄 대신하신 예수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 31-32)

1941년 제가 그 당시 심상소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사범학교를 갓 나오신 서울분이셨습니다. 방과 후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선생님도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기독교인이 별로 없을 때 였으므로, 저는 특별히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 분께서도 저를 꼭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모두들 교실에서 놀고 있다가 장난이 점점 심해져서 교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분필을 던지고 나중에는 칠판 지우개를 던져서 얼굴들이 형편없었고 울고 소리지르고 야단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화가 나신 선생님은 야단치신 후, 대표로 급장과 부급장을 복도에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벌을 서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추운 날이었는데, 지금같이 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도는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울고 떨면서 벌을 서고 있는데 옆 반의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피죽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저를 더욱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옆 반 아이들까지 복도 창문에 매달려서 벌 서고 있는 우리 둘을 놀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한지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목말라 하셨을까?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그 분의 심정은 이 정도로는 비교할 수가 없을텐데...하는 마음에 나오던 눈물을 꼭 참고 견뎠습니다. 한참 후에 선생님께서 들어오라시기에 들어갔더니 제게 "벌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고 물

주님! 인생의 어려움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나아가서는 더욱 감사할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으셨고, 이에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제가 받은 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께서는 가정 방문을 오셔서 이 사건을 어머니께 말씀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녁 식사 때 할머니와 아버지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할머니와 아버지께서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 때 일이 생생하고 “어린 것이 기특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항상 감사뿐입니다. 뇌막염으로 시작하여 중병을 앓고 난 후 바보가 된 지금도 분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바보만의 평안함을 즐기면서 참 자유인임을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김 현지 권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내가 볼드는 나의 중,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 1- 4)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깊이 명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웃의 죄를 가리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명상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덮어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할 때만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웃의 죄가 우리를 향한 죄일 때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이건 우리는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가리워 주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이웃의 죄는 입밖에도 내지 맙시다. 도리어 이웃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거리를 헤매어 다니십시오. 그것이 깊어 가는 골고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무의탁 양로원에 들어온 노인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직원 또는 경찰관이 아무리 캐물어도 자기의 연고자나 자식들의 신원을 마지막 죽는 날까지 결코 밝히려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자기를 버린 자식이지만 자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비록 자신을 버렸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 이웃의 죄를 덮어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십시오.

이 영길 담임목사의 [깊어가는 골고다] 중에서...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2-3)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가 삼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나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음부에까지 내려갔사오나
오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몸과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김 여영 집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며 ...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마태복음 27:14)

우리에게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간격과 괴리가 있습니다. 산 자는 죽음을 생각지 않고, 죽는 자는 삶을 기대치 않습니다. 산 자에게 죽음은 불행이고, 죽는 자에게 삶은 불가능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불청객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그 불청객을 맞으면서 거부하고 도망치고자 애씁니다. 삶에 미련을 두고 발버둥치다가 막상 죽음이 오면, 그때는 죽음을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고, 죽기 위해 죽으면서 삶과 죽음의 엄청난 간격과 괴리에 한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는 독특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셨고, 살면서 즐기치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그것도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돈 벌며,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 비천한 곳에 처하며 중처럼 심기되 왕으로 군림치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되 능력으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 목숨을 위해 자신을 변호치 않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치 죽으러 온 자처럼. 이러한 예수를 총독 빌라도는 심히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음을 맞으며 삶을 말하십니다.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말하며, 죽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해 죽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엄청난 간격과 괴리의 단절이 아닌 역설적인 일치와 조화였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살았고, 살기 위해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14-15). 예수에게 삶은 죽음을 향한 장(場)이었고,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살면서 우리는 자신을 보존코자 얼마나 힘씁니까! 수고와 봉사에 몸을 사리고, 가진 재물을 베풀기에 인색하며, 우리 존재가 무시되거나 가려지면 못 참고, 다른 이들 앞에 크게 드러나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며 내가 낮아져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참기 힘들고, 다른 이의 희생으로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 신영 집사)

주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주어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줌으로써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삶... 그리고 그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마음 고생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 예쁘고, 능력 많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예쁜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마음이 안 좋은 때 전화를 하곤 하는데 워낙 명랑하고 목소리도 예쁘지라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제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철없는 친구같은 생각을 합니다.

명랑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마음 아픈 이야기는 몇 배 더 진한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감추어진 아픔 같아서 살면서 자꾸 생각나고 때론 정신이 번쩍하고 날 때도 있습니다.

1년 전 만났을 때, 여전히 즐겁고 사랑스런 모습이 반갑기만 했는데, 담담한 그의 아픔이 새해인사에 묻어나니 또 가슴이 미어지며 기도에 게을리 했던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가슴으로, 생활로 매일매일 절실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제가 알기에 그이를 보내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 단실 집사)

주님! 아픔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여기 계시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이라”
(고린도후서 1:7)

언젠가 차문을 세계 단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호들갑스럽게 아프다고 수선을 피우며 울다가 문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때 얼마나 아팠을까?” 라고 울음 섞인 코맹맹이 소릴했더니 우리 애들이랑 남편이 아프다고 울 때는 언제고 울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놀려대서 그만 울다가 웃어버리고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아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비교를 했었다니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큰사고에서는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양팔 전체에 생김 3도 화상을 보며 저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을 때, 대리석처럼 굳어져있던 양팔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기에 수술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실감이 안났습니다.

큰 수술 후에는 엄청난 고통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내려갈 때마다 전 무섭고 두려운 공포심 속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는 이유없는 슬픔과 서러움에 갇혀서, 난 그 곳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주님의 손으로 내 손가락을 덮으시어 다치지 않게 하셨음을 제일 먼저 감사했는데, 아픔이 클수록 감사한 마음은 자꾸만 대상없는 화살이 되어 애꿎은 남편에게 날아갔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사랑이란 이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 식구들의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에 전 감동 받았고, 전 그 사랑을 통해 나누어주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 춘미 집사)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나같은 죄인 찬송을 부르며 은혜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소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36-37)

어머니께서 가끔 내게 들려 주시는 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판 ‘선한 사마리아인’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화입니다. 어머니는 광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선 시대 정권 다툼 속에서 광주 이씨 삼 대가 멸족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할아버지였던 이 수성 할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로한 자신의 아버지를 업고 경기도에서 경상 북도 영천에 살고 있던 친구 최 정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마침 최 정승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랑채 뒷마루에 아버지를 내려놓고 앉아 있던 이 수성을 보고는 최 정승은 “반역 죄인” 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내쫓았습니다. 그런후 최 정승은 사랑채 뒷마루에 불을 놓았습니다.

친리 길을 친구를 찾아왔던 할아버지는 다시 아버지를 업고 어둑 어둑 해지는 고개를 넘어 산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 때에 최 정승은 심복을 시켜서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게 하고 한 밤 중에 산에 가서 이들을 찾아내어 “여보게 낮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내가 차마 자네와 노부를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네.” 하며 이들 부자를 자신의 사랑채 다락에 모시고 와 은신시켰습니다. 그 후로부터 최 정승은 매 끼마다 식욕이 늘었다고 말하여 밥을 두 그릇씩 받아와서 사랑채 다락에 거처하고 있는 이씨 부자를 연명시켰다고 합니다.

옛 우리 선조들도 서로 돕고 의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때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었지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 혜원 교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서로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4-5)

보스톤에 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 길도 잘 모르면서 한 친구와 함께 하이웨이를 타고 멀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을 맞추느라 속력을 다해 달려오던 중 한 표지판을 보고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한참이나 멀리가서야... 다시 방향을 돌려 오는 길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끔 우리가 가야할 방향과 다른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그것도 전속력을 내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한번쯤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성없이 해오던 많은 것들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란 표지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실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안에 자리 잡고 있는 뒤섞인 감정들을 바로 보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좇아 마냥 커져만 가던 우리들의 욕심이 주님의 비우심과 자신을 내어주신 앞에 부끄러워 무릎 꿇게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강해져만 가는 우리들의 자아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스스로 연약하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십자가 상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축축히 스며들어 오는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을 가득 채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윤 경문 전도사)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Fourth Sunday in Lent)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6-8)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금처럼 녹으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지혜로움이 극하여서
예수님이 미련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밀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썩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져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싫어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송 명희 시인)

십자가의 길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33-34)

오래 전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십자가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가벼워진 십자가로 행복해하며 길을 가다 또 다시 무거워지면 자르며 자신의 똑똑함에 만족해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찢찢때때 지고 가는 다른 한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그 미련한 행동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다 깊은 낭떠러지의 계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은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다리 삼아 무사히 그 곳을 통과하였으나, 십자가를 잘라버린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가 짧아 그 곳을 통과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하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담대히 맞서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길은 미래를 향한 축복의 길임을 깨달아 우리를 덮고 있는 안개 너머 펼쳐질 비전(vision)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주소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증오와 갈등의 벽을 허물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 용서함으로써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소서.

끝없는 욕망의 우물을 파며 인생을 마치지 말고,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지혜를 터득케 하소서

(이 원걸 집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19-20)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는 16세기 스페인으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한 가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스페인에선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잔인한 핍박이 벌어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던 그 길거리를 예수님은 걸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하나 곧 카톨릭교회에 체포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주교는 예수님의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장황한 연설이었으나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가 아니라 종교다’였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주었다는 것. 그는 종교를 통해 대중들의 양심을 만족시켜 주었고, 그것만으로 대중들은 무지하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기독교에도 이런 모순과 위선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속에서 그런 위선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2000년전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예수가 아닌 “종교”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며 교회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행동들은 따라하지 못하면서 내 양심은 어설픈게 ‘그래도 교회생활하니까...’ 하며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세상적인 시험을 물리치셨던 이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임 현 교우)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믿음이 껍질같은 모습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스러진 들꽃이여!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마가복음 6:14-29)

예배 때마다 강단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꽃꽂이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꽃꽂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한 화려한 장미라면, 세례 요한은 그 화려한 장미를 더 드러나게 해 주는 장미꽃 주위의 이름없는 한 송이 들꽃이나 들풀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풀(들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장미가 더 찬연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단 한 차례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요10:41), 오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로 회개의 말씀과 메시아 소개에만 평생을 바친 세례 요한, 비록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3인칭으로만 소개하고 있으나, 그 속에 감추어져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례 요한이 가진 그 무언의 진리와 그 힘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만을 물으며 “나” 를 위해서만 살아가려는 우리네 삶을 향해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am I?)를 물으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귀한 칭찬 (마9:11-13; 마11:9, 11:1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도 아닌 것이, 장미인 채 하며 호기를 부리고 “나” 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헤롯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장미를 차지할 수도 있었으나 끝까지 들꽃이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향한 모든 관심을 장미이신 주님께로 돌린, 그저 한 여인의 욕망의 제물로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에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배 요한 목사)

주님, 장미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한 송이 들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용서할 수 있는 자만 용서한다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46)

예전 어느 글에서 읽었던 용서에 관한 짧은 문장이 오늘 아침 저로써 하여금 용서라는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만 용서한다면 무슨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겠는가? 그런 사랑과 용서는 악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며 용서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는 언제나 적당한, 때론 정당한 사유를 만들고 관대해집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과는 달리 나에게 분노와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장 동료에게 분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선생에게 상처받고, 나를 믿지않는 친구에게 토라지며, 나에게 버릇없이 대하는 후배에게 격분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선배에게 화내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가족/친지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도 증거하듯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만 용서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셨던(눅 6:27-28),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셨던(마18:21-22) 주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닮아가려하는 것이기에 더 특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때론 명령조로, 때론 회유조로, 그리고 때론 협박조로 다양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 다시 되짚으며 묵상하고 싶습니다. (렘4:32, 골3:13, 마18:35, 눅 6: 27-36)

오늘 하루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느 한 사람을 용서해 보렵니다.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으로 “괜찮다.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그에게 너그러워져 보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한대로 관대한 것처럼.. 또 주님이 그리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의 지난 모든 죄를 조건없이 그러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 혜승 집사)

주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저도 그에게 관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Jesus will help me, even though I am a sinner.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Have we ever accomplished great achievements without the help of God? Each one of us has asked Jesus for help in times of need. May it be winning a basketball game or receiving a satisfactory grade on a test, we seek the aid from our God. Thankfully, according to the scripture reading, God will always be with us.

And yet, we still become nervous and uncomfortable when the time comes. We say we trust the Lord with our life and yet, we tremble in fear before a difficult task. What is more ironic is that after the event, the outcomes are usually more than appeasing. We say to ourselves that we had worried for no reason. We now understand that God was with us. However, to our friends and neighbors, we act as though God had taken no part in our success.

Just last week at a swimming competition, I, myself, have committed this sin of ignoring God. Before my race, I would ask God for strength and support to swim fast. And I did swim well; I cut time and placed in my age group. In the midst of my joy, I forgot about God. I would believe I deserved all of the credit for my race. I would believe I deserved the attention from my friends when they congratulated me. It was after my momentary glorification that I finally remembered the God who provided the fruits of my labor. Guilt was the immediate emotion I felt. If a friend had helped me in my time of need, I would have thanked them. Why would I not thank the Lord for what he had done? The next feeling I experienced was shame. Because I knew that I would repeat my action again, and again, forever. And still, Jesus will help me, even though I am a sinner.

(한 상혁 David Han—Youth Group)

Let us be not afraid when troubles come in life, for God will be with us. And in return for His undying love, we will thank Him.
Amen.



약한 자의 기다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시편 130:6)

파수꾼의 기다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 그리고 기다림...

비록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제가 이렇게 당신을 애타게 찾을 수 밖에 없는 ‘약함’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약함도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내게는 너무나 많기에 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필요했고 그러기에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나의 가족, 그 가족의 진정한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을 향한 섬김에 대한 새로운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식구는 매일 밤 태규의 작은 방에 웅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태규의 빨간 의자에 앉아 성경이야기를 읽어주는 남편과 호기심에 가득 차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하고는 질문하기에 바쁜 태규. 태규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 찢찢매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제 막 꿈꾸기 시작한 태규와 우리 부부는 주님께로부터 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먼 미래의 어느 시간에 한번쯤은 오늘을 되돌아 보게 되겠지요. 매일밤 함께 기도 드리고 성경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키웠던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지.

(서 민정 집사)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만든 목수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음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28-30)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나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만든 목수입니다
그 동안도 나는 내가 만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웠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나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만든 목수입니다

이번에도 나는 죄인들이 달릴
십자가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만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다니요
주님은 목수 유명한 목수
주님이 만드신 멩에는 가볍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내가 만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다니요

(용 혜원 시인)

믿음의 경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1-2)

1절에서는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여 상급을 받기 위하여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방해하는 걱정과 근심 등에서 벗어나 죄를 멀리하고 힘이 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 봄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 우리에게 크나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지나가는 차에 뛰어 들 생각을 여러 번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싫으나 좋으나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멀리 앞서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바로 출발점을 출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경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급을 바라보셨기에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 환란, 핍박 등으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뒤쳐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할수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에만 집중해서 뒤쳐지는 것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힘 주시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김 만규 전도사)

믿음의 경주를 마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행, 우리의 선행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1)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해서 살렸다고 합니다. 또, 한 여자가 아기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 2대가 와서 불더니 차를 억지로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여자의 차 트렁크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의 운전자 덕분에 여인은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박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조금 늦게 나온 아이가 스쿨버스를 향해 뛰어갈 때, 아이한테 그 기다려주는 버스 운전사는 너무도 고마운 분입니다. 하지만 그 버스 뒤에서 아이를 태우고 학교로 향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버스 운전사가 알뜰기만 합니다. 가뜩이나 늦었는데 빨리 가지, 뭘 기다리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함으로써 천국으로 향하는 우등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 버스는 절대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선한 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함’은 우리가 또는 제 삼자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과 우리가 보는 심판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께서서는 큰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단지 단편적인 면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으며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느끼는 일은 주님께서도 선하다고 느끼실 줄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갖추었기에 더불어 우리도 선한 이들이 되어야함을…

(김 우진 집사)

각박하고 험한 세상속에서 한줄기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고 사랑하는 선한 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태복음 4:1-2)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왕의 왕이 되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습니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3가지의 시험중 첫번째 유혹만 살펴보아도 그 안에 숨겨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 4:3). 광야에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뒤 건디기 고통스러운 극한 굶주림에 처한 예수님에게 마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예수님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육신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 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마태 4:4)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신명기 8:3)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육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면 결코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중신토록 수고하여” (창 3:17) 먹고 사는 문제를 밤낮으로 염려하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 나은 생활, 좀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어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how) 물리치셨나”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왜(why) 예수님이 이 유혹을 물리치셨는가” 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모든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두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김 선희 전도사)

사순절 기간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의 소유자란 사실과 말씀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괜찮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4:21)

예배 시간, 그 전날 밤 피로의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자꾸만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고개를 떨구던 중, 몇몇 단어가 귓속에 들어갈 듯 말 듯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필레오에 그쳐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순종적인 면에 높은 의미를 두시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 베드로의 연설 중 3000명 이상의 지체들이 구원 받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앞에서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나도 미동되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머리엔 약점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성적인 유혹, 그리고 결단력이라는 몇몇 단어도 뒤따라 다가왔습니다.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당시 닦여 있었습니다. 자꾸만 나의 약점을 들추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확대되는 느낌. 그러는 도중에도 “괜찮다” 라는 사랑에 눈먼 주님의 속삭임이 던지시 다가왔습니다. “인간이라서 넘어진다” 라는 대중적인 크리스찬의 합리화에서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격을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탈바꿈 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편안함이 날 죽입니다. 익숙함이 날 죽입니다.

그저 생각에서 멈추고, 행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윤 영태 교우)

주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싶으며, 말씀 안에서 내 비전을 찾고 싶고, 또한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멘.



순종의 아름다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2)

어느 해인가 한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운해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떠다니는 구름을 올려다보다가 높은 곳에서 구름을 밑으로 내려다보니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다갈기도 하고 눈이 덮혀있는 광활한 대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름의 바다를 지나고 나니 망망 대해의 태평양이 눈 밑으로 펼쳐졌습니다. 워낙 높은 고도라 넘실거리는 파도와 대양의 깊음보다는 하나의 매끈한 푸른색 캔버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캔버스 위에 검은 색의 한 점이 나타나면서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얀 색의 두줄이 계속 그어지고 있는 것이 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점은 대양을 가로질러 어느 항구로 향하고 있는 배일 것이고 그 뒤의 하얀선들은 배의 후미에 있는 스크루가 돌면서 만들어진 하얀색의 파도들이 너울거리며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문득 그 광경을 보며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만든 인생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은 저 배와 같이 한점에 지나지 않겠지만 펼쳐놓은 인생의 흔적들은 분명 높은 곳에서도 선명히 볼 수 있는 스크루가 만들어낸 하얀색의 파도일 것입니다.

창 너머로 바라보던 눈을 잠시 감으며 세월이 흘러가며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의 흔적,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마감한 후에 더 선명하게 나타날 흔적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하나 라는 생각에 저의 과거속에 남겨져 버린 흔적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미래에 남기게 될 흔적을 상상해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박 진옥 집사)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거절치 않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순종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4)

몇 해전인가?

“The Passion of the Christ” 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수난절과 부활절 시기를 타고 이 영화는 흥행을 하였고, 저도 그 영화를 본 사람중 하나였습니다. 사단의 유혹이나, 예수님의 고난, 주위 사람들의 반응, 처세 등등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묘사하다 못해 소름으로 몸서리 쳐지게 마음을 짓누르는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도 아픔이려니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은 나의 아픔과 같이 나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죄없이 고초를 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뒷따라가며 일거수 일투족을 다 목격하면서도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막아주지 못한채 바라만 봐야하는 어머니의 마음. 고통과 피로 범벅된채 십자가를 끌고가는 지친 아들의 눈빛과 마주쳐도 어찌 한마디의 위로도 못해주고 달려가 아픔을 감싸주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들이 나에게서는 더더욱 억제 못할 아픔으로 가슴을 찢어왔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해도, 나의 살을 에이며 낳아 키운 사랑하는 아들의 고초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느 어머니인들 태연자약하게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며칠 전 어느 학교 좋은 동네의 고등학교에서 난도 살해사건이 일어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임을 당한 어머니의 슬픔도 가슴 아팠고,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 심판을 받아야하는 아들의 어머니 또한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젠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옆에서 지켜볼 수 없어서 서럽고 원통하게 슬플 것이고, 지금까지 알고있던 사랑스럽고 순진한 아들이 한순간 살인자가 되어 사회

주님! 역경 속에서도 미래를 향하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의 심판을 받으며 나의 품에서 벗어나게된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애달픈 슬픔도, 나의 삶을 에이는 것 만큼 아픈 고통일 것입니다.

오래 전 오클라호마의 건물폭파 사건으로 많은 인명을 잃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당한 아버지가 폭파범의 아버지를 위로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당했으니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자고..

우리 주위에 이러한 아픈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 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무고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뼈아픈 슬픔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어느 슬픔이나 고통도 함께 느끼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김 한나 집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마태복음 26:52-54)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군병들은 우연히 구레네 시몬과 마주쳤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혼자 지시기에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분은 너무 연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분은 자신과 함께, 그 분을 위해 십자가를 져 줄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소속감을 주기 위해, 진정한 안락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 혼자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고되고 고통스러운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존해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의존하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그 분을 지키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마 26:52-54) 예수님의 길은 무력함의 길, 의존의 길, 수난의 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지하는 어린 아이가 되셨던 그 분은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이 세상의 여정을 끝마치십니다. 그 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분은 사람들이 그 분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 분은 배신을 당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신분이 공표될 것인가? 버림받아 처형당하실 것인가, 아니면 많은 자가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인가? 아무도 따르는 자 없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 분을 도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가자 목록에 올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기만 하면, 그것은 가벼운 짐이며 아버지의 짐으로 인도해 주는 쉬운 멍에임을 알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중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 1:13)

자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 많은 인간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진심으로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사순절인 이 기간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순절의 기간을 뜻있게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감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오니 저희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한량 없아옵기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최 선경 권사)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37-38)

나는 오늘도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세상살이 그 재미에 흠뻑 빠져서
나는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 분의 죽음이 나에게서 너무도 부담스러워
나는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 분처럼 살아갈 자신이 전혀 없기에
나는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사무치는 아픈없이 그 분을 이해할 수 없기에
나는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분을 쫓아갈 자신이 없기에
나는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조롱과 핍박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서워

나는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초라하게 죽어가신 그 분이 너무 부끄러워
나는 그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그런데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의 마음이 이리도 아파오는
까닭은
죽음의 길인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 분의 복종,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진한 고통을 나에게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역전시킨 고귀한 은혜
그래서 나는 이후로 그 분을 배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분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안 태준 집사)

넘어지고 깨어지고 질그릇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지만 주님 환난날에 꼭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소서. 아멘.

당신 걸으셨던 길

"제주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46)

당신 걸으셨던 길
다시 생각하니 둘 아니었겠나
몸으로야 한 길 곱고다 길이였지만
맘으로는 또 한 길 사막의 길이였으리

고갯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
모래벌판 길없는 길은 아사셀 죽음의 길

십자가 밑엔 모친과 여인있었으되
앗사셀은 사람도, 물도, 밥도, 그늘도 없는...
있는 건 오직 절망, 무한과 모래 평원뿐
걷다가 주리다가 목마르다가 지쳐 쓰러져 기진해 죽는

인류죄 속량하는 고난 이리 아프고
세상악 씻어내는 고생 그리 쓰렀나

되새겨 보자 동참해보자
그의 미쁜 의의 제자되고저

(전 인재 교우)

- 편집자 주: Asasel - scapegoat 레 16:8, 광야에 사는 마귀의 이름, 험한 절벽, 떠나 보내는 염소, 완전한 멸망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걸으신 고난의 길 우리도 동참하며 참 제자의 도리를 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23:21)

우리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
날마다 당신의 간절하신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때마다 이유를 만들어 외면했습니다.

당신의 피물은 살갓이 찢겨지던 고통도
못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던 당신의 아픔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한을 거두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당신을 대신해서

굴고다 언덕의 나무들이 소리죽여 울었던 사실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부르는 일이 그리했습니다.

이제
옥합 깨트려 당신의 피물은 살갓 위에 바르겠나이다.
두 손 깨끗이 씻어 정성스레 바르겠나이다.
당신이어 평안하시나이까...

당신의 십자가 끝을
우리들의 울음이 멈춥니다.

(고 경아 집사)

주님! 모든 걸 내려 놓습니다.
아멘.





성 금요일
(Good Friday)

주님!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
(마가복음 15:37-38)

오 주님!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언덕 길
그 못 백성의 저주의 함성
그 못 백성의 터지는 조롱 속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주님!

그 쓰라렸던 가지 면류관
당신의 이마 사이로 떨어지는 핏방울
그 채찍 맞아 떨어진
당신의 몸 위로 흐르는 핏물

벗기워진 당신의 모습에
찢겨진 당신의 모습에
떨시, 조롱, 저주 받으신 당신의 모습에
저의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저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목 마르다!
다 이루었다!
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임 숙현 집사)

세상 죄 지고가는 주님의 고난, 나의 죄를 위함이니, 나의 생을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재(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

(시편 23:6)

‘재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는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19) 한마디로 재의 수요일은 나의 장례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흙되기 위해 내 몸이 재가 되면 나는 끝인가? 아니, 바로 이 죽음의 흙속에 불(火)이 담겼습니다. 이 불이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대변합니다. 재, 회(灰) 자는 바위집 안에 있는 불(火)입니다. 바위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물과 어머니의 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성령)이 마리아의 몸(물)을 통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불(성령)을 재의 수요일에 만납니다. 재의 수(水)요일은 물의 날입니다. 이 물의 날에 ‘영원한 샘물’ (예수님- 요한복음 4:14)이 나의 죽은 흙, 또는 재에 부어집니다. 내 죽은 재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샘물과 하나님의 영원한 불(성령)이 역사하여 나를 영원한 삶에 다시 옮겨 담는 작업이 사순절,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해서 이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내 몸에 잉태, 또는 옮겨 심겨진 체험을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예수)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빌립보서 1:20-21)이라 말합니다.

부활이 내 죽음을 거름으로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 기쁨, 이 기쁨은 내 죽음에서 주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접부쳐지는(grafted)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22)

이 기쁨의 농사를 짓는 사순절이 입춘(立春)과 함께인 것은 봄(春)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三)위께서 아들 인자(人)를 햇빛(日)으로 내려 보내 부활을 싹트게 해 키운다는 하나님 사랑의 축복을 암시합니다. 이 부활의 봄을 다윗왕은 일찌기 노래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하나님)과 인자하심(예수님)이 정녕 (성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편 23:6)”

(신 영작 집사)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돌아갈 제 몸에 주님의 영원한 샘물을 부어 성령으로 부활을 키워주시는 사랑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부활주일
(Easter Sunday)

부활절의 기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도 그의 이름으로 죄 사람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46-48)

돌무덤에 갇힌 침묵이
큰 빛으로 일어나
눈부신 봄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용서가 미움을 이겼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웃음 잃은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시는 분
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엔
평화로 오시는 분

산 위에 바다 위에 도시 위에
눈물 가득한 우리 영혼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빛나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여
당신은 왜 그리 더디 오십니까

오오, 주님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수난의 마지막 저녁처럼

부활의 첫 새벽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죽어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어둠 속에 누워서
밝은 빛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왜 자주 숨어 계십니까
좀 더 일찍 알아 뵈지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부활하신 세상에서
이제 거짓 사랑은 끝날 것입니다
삶을 지치게 하는 교만과 불신이 사라지고
겸손과 감사가 넘쳐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심의 무덤을 빠져 나와
어디든지 희망으로 달려가는
하늘빛 바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죽음을 이긴 사랑 하나로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님이 오시는 들길을 웃으며 달려가는
연초록 봄바람으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이 해인 시인)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부터 시작하여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계속되는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 기도, 화해, 금식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절입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 617.739.2663 www.kcboston.org